

인문대 소식



발행처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주소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장전동)
발행일 2018년 9월 전화 051-510-1501
발행인 김중수 편집인 권순복
디자인/제작 부산대학교출판부 전화 051-510-1932

학사 일정

2018. 9. 1(토)	2018학년도 제2학기 개강
14(금)	대학원 전기 학위청구자격 외국어 시험
14(금) ~ 21(금)	대학원 전기 학위청구자격 종합시험
2018. 10. 4(목) ~ 11(목)	2018학년도 2학기 수강취소(W) 신청
12(금)	수업일수 1/3선
16(화)	2018학년도 전기 학위청구 심사용 논문제출
22(월) ~ 27(토)	2018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30(화)	수업일수 1/2선 (일반휴학 마감)
2018. 11. 1(목) ~ 8(목)	2018학년도 겨울계절수업 수강대상자 복학신청
14(수) ~ 16(금)	겨울계절수업 수강신청
16(금)	수업일수 2/3선
2018. 12. 10(월) ~ 14(금)	2018학년도 2학기 휴업일에 대한 지정보강일
15(토) ~ 21(금)	2018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22(토)	동기휴가 시작
26(수) ~ 19. 1. 22(화)	2018학년도 겨울계절수업
2019. 1. 3(목)	2018학년도 전기 학위논문 심사결과보고서 및 최종논문 제출
11(금) ~ 24(목)	2019학년도 1학기 국·영문 교수계획표 입력
2, 22(금)	2018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Contents

02 | 미래내 단상 / 교수동정 03 | 인문대 소식 / 학과·연구소 소식 04 | 학과·연구소 소식 08 | 신간소개

故 고현철 교수 3주기 추도식

故 고현철 교수 3주기 추도식이 2018년 8월 17일 10.16기념관 및 상남국제회관에서 열렸다. 추도 행사 전 추모 조각상 앞에서 학생대표들과 헌화가 있었으며, 1부 추도행사는故 고현철 교수 약력 및 업적 소개, 추모사업 경과보고, 추도사, 추모시 낭송, 추모영상물 상영, 추모공모전 당선작 발표 및 시상 순으로 진행되었고, 2부 추도학술대회는 '고등교육 적폐청산과 대학민주주의' 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인문대학 전체교수 연수

2018년 6월 21일부터 6월 23일까지 인문대학 전체교수 연수를 제주도에서 개최하였다. '인문대학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 모색' 을 주제로 김중수 학장의 발표와 전체교수 토론회를 가졌으며, 특히 이번 연수는 8월말 퇴임을 앞둔 중어중문학과 서정희 교수님, 영어영문학과 윤화영 교수님과 후배 교수 간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하여 소통과 공감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제주도의 푸른 밤

영어영문학과
김유곤

프랑스의 저명한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는 “진정한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을 갖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필자에게는 지난 6월 인문대 교수 연찬회로 다녀온 제주도 탐방이 프루스트가 말한 “새로운 시각”을 가져다준 의미 있는 여행이었다. 사실 연찬회를 손꼽아 기다렸던 데에는 나름 이유가 있었다. 여름 날의 푸른 바다 너머 제주행 비행기를 탄다는 것은 신입교원으로서 맛있는 첫 번째 학기를 무사히 보냈다는 안도의 순간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바쁜 학사일정으로 인해 간단히 목례만 하고 지나쳤던 선배 교수님들과 함께 아름다운 제주도 올레길을 걸으며 여유롭게 담소를 나눌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번 여행이 내게 특별했던 것은 올해 정년퇴임을 앞둔 영어영문학과 윤화영 교수님과 중어중문학과 서정희 교수님, 이 두 분과 함께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막 교수생활을 시작한 새내기인 필자로서는 30여년의 교수생활이 어떤 의미인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지만, 두 분 모두 문학을 전공하셔서 그런지 내내 각별하게 느껴졌던 것 같다. 저녁식사를 마치고 경청한 교수생활을 마무리 하는 두 분의 소회도 큰 무게감으로 다가왔다. 특히 교육자로서 지난 세월의 다사다난함을 회고하시던 모습, 그리고 두 분을 따스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뜨거운 축하의 박수를 보냈던 동료 교수님들의 모습은 별빛이 수놓은 제주도의 푸른 밤하늘과 함께 늘 기억 날 것 같다.

키 큰 삼나무가 빼곡히 늘어선 ‘사려니 숲길’을 함께 걸다가 길옆에 핀 각양각색의 제주도 수국을 발견한 윤화영 교수님은 한동안 발길을 떼지 못했다. “참, 예뵤요. 너무 예뵤!” 하고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에서 그동안 강의실에 앉아있는 수많은 학생들을 마치 꽃을 바라보듯 애정 어린 눈길로 대했을 교수님의 따뜻함이 느껴졌다. 시를 사랑하고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작은 사물과 사건 하나 하나에 애정을 갖는 그 향기로운 마음이 좋다. 윤화영 교수님, 서정희 교수님 두 분께서 모두의 축복 속에 정년을 맞이하게 된 것은 그동안 따뜻하고 인간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셨기 때문이리라.

제주도에서 돌아와 며칠 뒤 연구실 문을 여니 낯익은 이름이 적힌 택배상자 하나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미국 유학시절 박사논문 지도교수님께서 보낸 선물이었는데, 주로 내가 좋아하는 현대 시인들의 작품집이 들어 있었고 상자 다른 한쪽엔 세상에 몇 권 남지 않은 유명시인들의 초판본 시집도 함께 있었다. 작년에 미국에서 정년을 맞이한 지도교수님은 그동안 소장하시던 수많은 서적들을 모두 정리하여 제자들에게 나눠주셨는데, 아마 예전에 내가 탐내며 몇 번이고 뒤적이던 그 책들을 기억하고 계셨던 모양이다.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 따뜻하게 배려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시인의 마음’ 이자 ‘교육자의 마음’ 이 아닐까? 세계 속 나 아닌 존재들과 교감하고자 하는 연민과 공감의 정신. 이번 제주도 연찬회는 아름다운 자연풍경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각”을 얻게 해준 “진정한 여행”이었다.

정년퇴직 교수



영어영문학과
윤화영 교수

영미회곡 전공. 부산대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와이 대학에서 석사, 경북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1982년 9월에 부산대 영문학과 교수로 임용되었다. 영어영문학과 과장, 부산 시립극단 운영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대표논문으로는 「베케트의 ...but the clouds..에 대한 들뢰즈적 읽기-비전, 오디션, 그리고 예술의 절대적 탈영토화」, 「베르그송, 들뢰즈, 그리고 베케트문학의 ‘잠재태’(the Virtual) 혹은 ‘순수과거’의 시간」 외 다수가 있으며, 대표저작으로는 「상복이 어울리는 엘렉트라」(역서) 등이 있다.



중어중문학과
서정희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중국어를 전공하고, 1980년에 대만 私立輔仁大學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1988년에 國立臺灣大學에서 문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3년 3월부터 2018년 8월까지 35년간 부산대학교 중어중문학과에서 재직하면서 교육과 연구 활동을 통하여 후학을 양성하였다. 주된 연구 분야는 중국고전소설이며 논문으로는 「西遊記八十一難의意義及其基型結構」, 「西遊記의 주제 연구: 內丹說의 수행이론을 중심으로」, 「心學과 西遊記의 주제 연구」, 「水滸傳의 구조 연구」 등을 비롯한 다수의 논문이 있으며, 역서로 『근-현대중국사(상)-제국의 영광과 해체』, 『근-현대중국사(하)-인민의 탄생과 굴기』와 『중국사회와 서양의 물결』 등이 있다.

인문대 교수 장기과건

김임숙	일어일문학과	1년	일본	2018.1. ~ 2019.1.
이재봉	국어국문학과	1년	일본	2018.2. ~ 2019.2.
주광순	철학과	1년	코스타리카	2018.2. ~ 2019.2.
이선진	영어영문학과	1년	미국	2018.3. ~ 2019.2.
양은경	고고학과	1년	미국	2018.8. ~ 2019.8.

인문대 교수 연구년

정출현	한문학과	1년		2018.3. ~ 2019.2.
조강희	일어일문학과	1년		2018.3. ~ 2019.2.
전지현	영어영문학과	1년		2018.3. ~ 2019.2.
허영재	독어독문학과	1년		2018.3. ~ 2019.2.
윤애선	불어불문학과	1년		2018.9. ~ 2019.8.
김남이	한문학과	1년		2018.9. ~ 2019.8.

2017학년도 후기 인문대학 박사학위수여자 명단

- 1 **반심하** (국어국문학과) [지도교수: 박소영]
「동사구 대응과 생략에 대한 한·중 대조 연구」
- 1 **양난** (중어중문학과) [지도교수: 김혜준]
「韓國華人華文文學研究-以韓國華人身份認同為中心」
- 1 **서순현** (일어일문학과) [지도교수: 류민화]
「内外への移動を表す日韓使役動詞の認知意味論的意味の対照研究」
- 1 **이윤아** (일어일문학과) [지도교수: 조강희]
「発音指導がもたらす韓国語日本語学習者のピリ-フの変化と発音との関係」
- 1 **이지연** (영어영문학과) [지도교수: 장경철]
「영어 등위접속사의 정도성에 관한 연구」
- 1 **황현미** (영어영문학과) [지도교수: 박기성]
「영어 동사파생명사의 중의성에 관한 연구: 동사 어기의 의미 특성을 중심으로」
- 1 **최영이** (영어영문학과) [지도교수: 이상도]
「영어 자음군 동화와 이화의 음향적 지각단서에 의한 자질보존성 분석」
- 1 **허명화** (사학과) [지도교수: 최덕경]
「秦漢代 조상제례와 生死觀 研究」
- 1 **윤창숙**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전공) [지도교수: 박소영]
「한국어 초급 학습자를 위한 화용 교육 방안 연구」
- 1 **방염**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전공) [지도교수: 임주탁]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발표 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설계 연구 - 발표전략 교육을 중심으로-」

2018학년도 2학기 학과장 명단

2018학년도 제2학기 학과 및 협동과정의 운영을 총괄하게 되는 학과장 및 협동과정 전공주임 교수는 다음과 같다.

국어국문학과장	박소영 교수	2018. 2. 1.
중어중문학과장	김혜준 교수	2018. 9. 1.
일어일문학과장	오경환 교수	2018. 9. 1.
영어영문학과장	장경철 교수	2018. 1. 15.
불어불문학과장	이은령 교수	2018. 3. 1.
독어독문학과장	인성기 교수	2017. 2. 1.
노어노문학과장	최동규 교수	2018. 9. 1.
한문학과장	김승룡 교수	2018. 3. 1.
언어정보학과장	김태호 교수	2018. 3. 1.
사학과장	이종봉 교수	2018. 2. 1.
철학과장	문성원 교수	2018. 3. 1.
고고학과장	임상택 교수	2018. 3. 1.
인지과학 전공주임	권순복 교수	2015. 9. 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주임	박소영 교수	2018. 2. 1.
과학기술인문학협동과정 전공주임	곽차섭 교수	2018. 3. 1.

인문학 최고과정 입학식 개최

부산대학교 인문학 최고과정 제4기 입학식이 2018년 3월 14일 상남국제회관에서 거행되었다. 제4기 입학생은 이원태((주)경일동상 대표이사) 등 22명이 입학하여 1년간 인문학 강의를 수강하게 된다.



인문학 최고과정 학술현장답사

부산대학교 인문학 최고과정 원우들이 2018년 4월 21일 경남 산청 일대에 학술현장답사를 다녀왔다. 산천재, 덕천서원, 남명기념관 등을 둘러보며 조선 선비의 전형 남명 조식 선생의 생애와 발자취를 배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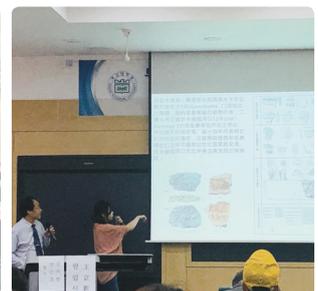


학과·연구소 소식

1 고고학과

중국 길림대학 교수 초청강연

고고학과와 교류관계에 있는 길림대학 고고학과의 王立新, 宋玉彬, 王培新, 陈醉, 卢成敢 등 교수 및 연구자를 초청하여 초청특강을 개최하였다. 본교의 학부생 및 대학원생뿐만 아니라 타 대학의 학생과 학계 연구자들도 의미 있는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중국 고고학의 여러 분야를 접하게 된 뜻 깊은 시간이었다. 이후 길림대학 고고학과와의 학술적 교류가 더욱 기대된다.



학과·연구소 소식

하계방학기간 중 현장실습

하계방학기간 중 여러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통해 많은 경험을 쌓았다. 이번 방학에는 부산대학교박물관에서 15명, 정관박물관에서 1명, 마산현동발굴현장에서 2명이 실습을 하였다.



I 국어국문학과

국어국문학과 학술현장답사

국어국문학과에서는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2박 3일간 학술현장 답사를 다녀왔다. 이번 답사에서는 전라남도 일대(곡성-광양-순천-담양-나주)의 문학과 문화 관련 현장을 둘러보았다. 낮에는 답사를 통해 문학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저녁에는 신입생 환영회를 겸하여 교수와 학생의 유대감을 고취시키는 시간을 가졌다. 전라남도에 남아있는 문인들의 숨결을 느끼고,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며 좋은 추억을 남겼다.



한국문학회 2018 하계 전국학술대회

한국문학회와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가 주관하는 학술행사가 6월 16일 부산대학교 인덕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1부는 자유 주제로, 2부는 한국 문학과 장애라는 기획 주제로 국어국문학과에서는 광지숙 박사 수료생이 「〈한양가〉와 19세기 서울」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I 노어노문학과

노어노문학과 동아리 활동

노어노문학과에서는 학과 내에서 3개의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학술동아리(스파세니에), 축구동아리(아라사), 춤·연극 동아리(까로나)로 구성되어 있다. 대다수의 학과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동아리의 특성에 맞는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신입생이 들어오는 3월에는 마니또 게임이나 조별활동 등 친분 활동을 많이 하여 선후배와 동기들 사이가 더욱 돈독해진다.

학과 특성에 맞는 문화 체험을 하거나, 전공 스터디를 구성하여 함께 공부하면서 전공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학생들 간의 결속력을 다지고 있다.



I 독어독문학과

찾아가는 해외취업 설명회 개최

독어독문학과는 4월 20일 금요일, 인문관 211호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해외취업설명회 독일편>을 개최하였다. 학부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돋보였다.



오월 축제(Maifest) 개최

독어독문학과와 독어교육과는 공동으로 오월 축제(5월 19일 토요일)를 부산대학교 넉넉한 터에서 개최하였다. 부산지역 독어독문학과 관련 대학생들과 일반인들이 참여하여 축제의 한 마당을 이루었다.



오픈캠퍼스 개최

독어독문학과는 5월 26일 토요일, 인문관 211호에서 전공체험형으로 오픈캠퍼스를 개최하였다. 독어독문학과에 관심 있는 고등학생들에게 전공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1 불어불문학과

2018 불어불문학과 신입생 환영회

불어불문학과는 송정 일원에서 불어불문학과 신입생과 복학생 환영회를 가졌다. 약 40여명의 학생들과 교수님이 참석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신입생과 복학생, 그리고 편입생들의 학교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 사학과

2018학년도 1학기 사학인의 밤(3월 16~17일)

새내기들과 선배들 간에 멘토, 멘티를 뽑으며 새내기들이 학교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새내기들과 학생회 집행부들이 만든 음식을 다 함께 나누어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2018 사학과 정기답사(전라도 지역, 3월 27~30일)

익산, 김제, 고창, 나주, 목포, 해남, 강진 등 전라도 지역으로 사학과 정기답사를 다녀왔다. 청동기시대 고인돌 유적부터 5.18 민주묘지까지, 전 시대를 아우르는 답사지 견학에 각 시대 전공 교수님의 설명이 더해져 학생들에게는 알찬 배움의 시간이 되었다.



2018학년도 1학기 사학과 1, 2회 취업특강(4월 6일, 6월 1일)

졸업생 선배들을 초청하여 학생들의 관심분야에 대한 취업특강을 실시하였다. (1회 : 대학원 및 전공 분야 / 2회 : 공무원 분야)



1 언어정보학과

언어정보학과 신입생환영회

언어정보학과는 2018년 3월 23일 ~ 24일 송정으로 1박 2일간의 신입생환영회를 다녀왔다. 50여명의 신입생과 재학생, 졸업생 그리고 교수님들이 참여한 신입생환영회에서 학생들은 친목을 도모하고 추억을 만들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저명학자 초청 특강

언어정보학과는 2018년 6월 20일 오하이오 대학교의 Danielle O. Pyun 교수를 모시고 '이문화사회에서 소통과 연대의 도구로서의 언어교육'이란 주제로 학부 및 대학원생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강을 진행했다.



1 영어영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신입생 환영회

영어영문학과에서는 2018년 3월24일(토)부터 2일에 걸쳐 함지골 청소년수련관에서 2018학년도 학부 신입생환영회를 개최하여 학부 신입생들과 재학생, 교수님들과 졸업생들의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영어영문학과 동문장학금 수여식

영어영문학과에서는 2018년 1학기 영어영문학과 동문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2010학년도 1학기부터 매학기 영어영문학과는 동문회 발전기금 출연으로 학부 각 학년의 성적우수자를 선정,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8 영어영문학과 어학, 문학, 번역 전공 봄 산행

영어영문학과 어학, 문학, 번역전공 석, 박사 재학생 및 졸업생들은 지난 4월 28일 전공 교수님들과 함께 2018년 봄산행을 금정산 일대로 다녀왔다.



I 일어일문학과

새또맛이와 일본어 말하기 대회

일어일문학과 행사 중의 단연 으뜸인 새또맛이를 3월 23일~24일 양일간 진행하였다. 장기자랑, 방놀이, 달빛 데이트 등을 통한 신입생과 재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정보교환 및 친밀감 형성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간이었다. 그리고 6월 1일에는 일본어 학습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이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도움이 되고자 ACE사업단의 후원을 받아 '일본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하였다. 일어일문학과 학생 뿐 만 아니라 일본어를 부전공으로 하고 있는 학생들의 참여도 돋보였으며, 지원자들이 가져온 다양한 주제들로 풍성하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I 중어중문학과

중어중문학과 답사(중문인의 한마당)

중어중문학과에서는 2018년 4월 27일부터 4월 28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남해 일대를 답사하였다. 신입생과 재학생, 남덕현교수님, 이지은 교수님, 신우선교수님, 손옥경교수님(객원교수), 조교 등 80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답사를 통해 교수와 학생이 교류하고, 신입생과 재학생이 서로 화합하는 계기가 되었다.



I 철학과

SAM분야 2018학년도 철학과 학부·대학원 연계 Colloquium

작년에 이어 올해 4월 27일에 개최된 본 학부·대학원 콜로키움은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최근의 미투(MeToo) 운동과 관련해서 진행되었다. 본 콜로키움은 미투 운동에 대한 정치적·거대 담론적 차원보다는, 신자유주의시대의 무한 경쟁 사회 속에 던져진 대학생들의 억압된 현실을 돌이켜보고, 기성세대와 자신들의 왜곡된 성의식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 일깨워줌으로써, 주체적인 양성평등을 위한 실천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던 자리였다. 이날 강연을 맡은 이안나 선생님은 계명대학교 여성학 박사로서 한국양성평등진흥원 성희롱 전문 강사이며, 대학교 및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활발한 교육 강의를 하고 있다.

SAM분야 2018년도 학부·대학원 연계 Colloquium

신자유주의시대
대학생들의, 연애불능과
올바른 성적 실천을 위한
미투 운동

강연자 : 이안나 선생님
(한국양성평등진흥원 소속)

2018. 4. 27.(금)
17-19시
인문관 206호



2018년 PNU 철학과 오픈캠퍼스

5월 26일(토)에 재학생 주도형으로 개최된 철학과 오픈캠퍼스는 참가한 고등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오픈캠퍼스로 진행되었다. 특히 재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철학하세요"라는 영상물을 상영하고, 참가자와 재학생 및 대학원생 간의 1:1 상담을 통해서 철학과 진로 방향과 비교과 과정을 안내함으로써, 막연한 철학과에 대한 진로에 대한 청사진을 제공했다.



I 한문학과

한문학과 춘계답사

한문학과에서는 지난 3월 10일~11일 경북 경주 일대로 춘계답사 겸 신입생환영회를 다녀왔다. 옥산서원, 김유신장군묘, 천마총, 감은사지 등 경주 일대의 문화 유적지를 답사하고 저녁에는 신입생환영회 행사를 개최하였다. 행사를 마치고 선배와 후배, 그리고 교수님들과 함께 학교생활, 진로, 교우관계 등 수업 시간에 다하지 못했던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 해를 시작하며 한문학과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의 단합을 다지는 소중한 자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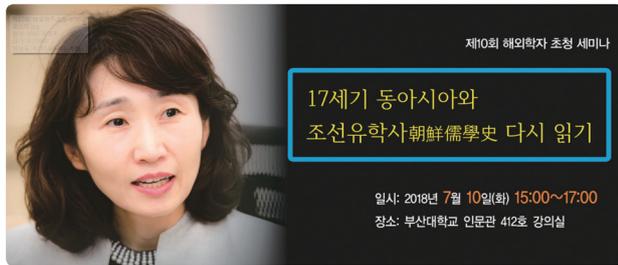
제 20회 효원성년제

한문학과에서는 매년 5월 '성인의 날' 에 즈음하여 전통적인 형식을 갖춘 '효원성년제(曉原成年祭)' 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성년을 맞이한 이번 행사는 사전 신청을 받아 선정된 부산대 한국음악학과 학생들과 한문학과 및 기타 학과 재학생 100여 명이 행사에 참가해 전통의식을 치렀고 한국음악학과 학생들의 공연이 더해져 전통 관례식의 멋과 흥을 돋우었다.



제 10회 해외학자초청세미나

2018년 7월 10일(화)에 강지은(국립대대대학 사회과학원 국가발전연구소) 교수를 초청하여 "17세기 동아시아와 조선유학사 다시 읽기" 라는 주제로 해외학자초청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강연은 부산대학교 BK21+ 동아시아 전통지식과 번역 사업팀, 한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사학과가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1 인문학연구소

2018년 희망의 인문학 "인간과 꿈-상상력의 인문학"



- 1강(이효석) : 꿈과 현실의 갈등 : 디킨즈의 <어려운 시대>
- 2강(서민정) : 대중문화 속 부산 사람들의 꿈과 애환
- 3강(이상현) : 우리 고전<구운몽> 속의 꿈과 사람들
- 4강(최병학) : 신호로 꾸는 꿈 : 그리스신화
- 5강(최병학) : 영화로 꾸는 꿈 (로스버드로 읽는 영화와 포스트휴먼의 꿈)

연속기획특강 51강

"평화체제 이후의 한국문학,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 일시 : 2018년 6월 29일(금), 15:00
- 장소 : 인문대학 교수연구동 209호
- 발표 : 김성수(성균관대학교)
- 주최 :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 후원 :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1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8년 제 1기 시민강좌 "세상을 여는 아름다운 인문학"



- 일시 : 2018년 4월 10일(화) - 4월 19일(목) 19:00-21:00
- 장소 :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배움4실(3층)
- 발표 : 변광석(한국민족문화연구소) 외 3명
- 주최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부산시립시민도서관

양무공 김태허장군 기념 학술대회 "양무공 김태허장군의 삶과 그 역사적 의미"

- 일시 : 2018년 4월 7일(토), 14:00
- 장소 : 밀양시청 대강당
- 발표 : 김강식(한국해양대학교) 외 2명
- 주최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廣州金氏大宗會
- 주관 : 밀양문화원
- 후원 : 밀양시, 밀양시의회, 밀양향교, 예림서원, 밀양유도회, 부산대학교 점필재연구소



2018 해외석학 초청강연회 "한국인도 잘 모르는 한국 역사와 문화"

- 일시 : 2018년 5월 18일(금), 16:00
- 장소 : 부산대학교 인문대 시습관(501호)
- 발표 : 마크 피터슨(Mark A. Peterson, 배도선)
- 주최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사학과
- 후원 :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PoINT)

공동주최 초청강연회 "마쓰우라 레이의 <사카모토 로마 평전 >"

- 일시 : 2018년 4월 30일(월), 16:30
- 장소 : 부산대학교 사회관 203호
- 발표 : 손일(전 지리교육과 교수)
- 주최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공동주최 정기(하계) 학술발표회

- 일시 : 2018년 6월 23일(토), 14:00 - 17:20
- 장소 : 부산대학교 시습관 501호
- 발표 : 김영록(울산대학교) 외 2명
- 주최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부산경남사학회

2018 공동학술심포지엄 "중세고고학을 통해 본 고려시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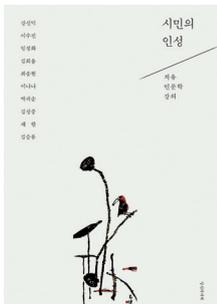
- 일시 : 2018년 7월 13일(금), 13:30 - 17:30
- 장소 : 부산대학교 인덕관 대회의실
- 발표 : 주영민(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외 3명
- 주최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사)부경역사연구소



조선 후기 시조와 그 이해의 시각

조태흠 | 박이정 |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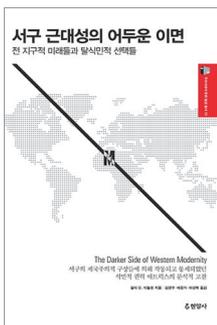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조선전기 시조는 사대부 동류들 사이의 유희이나 취미의 차원에서 자족적으로 연행되는 풍류방 예술이었으나, 조선후기는 경제적으로 성장한 중인층들이 시조의 새로운 수용자로 등장하고 가객들이 시조 연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시조 연행이 집단적·향락적·유희적 성격을 띤 도시시정의 풍류예술로 자리 잡게 된다. 이 책은 이러한 연행 양상의 변화를 조선 후기 시조의 성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인식하였다. 조선 후기 시조에 대한 전반적인 시각에서부터 조선 후기 시조의 흐름, 대표작가와 대표작품들에 대한 통합적인 시각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시민의 인성 - 치유인문학강의

김승룡 외 9명 | 당신의서재 |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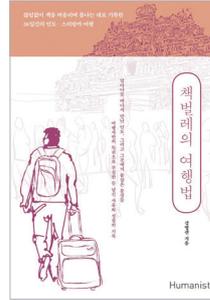
의학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통해 생명 가치를 탐구해 온 강신의 교수, 깊은 상상력의 확보를 통해 어린이의 철학적 사유 능력을 도모해 온 김화용 교수, 숲이 전하는 평등과 공생의 메시지를 전하려 노력해 온 최순현 교수, 하얀 여백과 고운 색채의 조화를 통해 마음의 치유를 추구해 온 이나나 교수, 인간의 심리에 대해 과학적 이해 체계를 마련해 온 이수진 교수, 무예를 인성과 결합하며 치유의 가능성을 확인해 온 박귀순 교수, 한문고전 속 가치관의 사회적 환류와 인성 함양을 가르쳐 온 김성중 교수, 각자가 지닌 심리적 자원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일깨워 온 임정화 교수, 마음치유를 통해 영혼이 있는 한의학을 모색해 온 채한 교수, 인간의 감정을 주목하고 한시의 위로 가능성을 찾아온 김승룡 교수! 저자들은 전공하는 분야가 모두 다르다. 그럼에도 각자의 영역에서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고전과 치유! 질문의 동시성! 열 개의 차원은 하나의 시공간에서 만났고, 곧바로 서로 공명하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한 해가 흘렀다. 저자들은 고전을 통해 인간의 심리를 치유하고 인격적 성장을 이루며 끝내 정신건강을 확보하고자 하는 학문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다. 이를 잠정적으로 '고전 치유학'으로 부르기로 했다.



서구 근대성의 어두운 이면

월터 D. 미블로 지음
김영주, 배윤기, 하상복 옮김 | 현암사 | 2018

서구 근대성 속에 감추어진 어두운 이면인 식민성의 문제, 근대성의 신기루를 예리하게 비판하고, 식민성의 뒷에서 벗어나기 위한 탈식민적 선택, 그리고 근대성에 대한 대안으로서 미래의 새로운 공동체적 세계를 만들어 나갈 다양한 방법을 설득력 있게 보여 준다.



책벌레의 여행법

강명관 | 휴머니스트 |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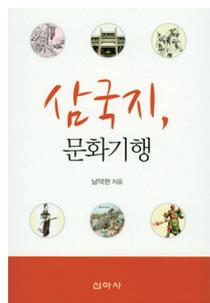
낮선 거리를 걸으면서도 늘 책을 떠올리는 어느 활자 중독자의 인도·스리랑카 문헌록. 텍스트를 엄밀하게 분석하는 성실한 연구자로 이름난 한문학자 강명관의 인도·스리랑카 여행기. 저자는 자신을 그저 '여행자를 무심히 지나친 단순한 여행객' 이라고 말하지만 낯선 곳을 거닐며 사람과 물정을 살피는 그의 글에는 날카로운 단상과 통찰이 가득하다. 특히 늘 책과 함께하며 연구하는 한문학자답게 그의 여행기는 인도·스리랑카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책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펼쳐 보인다. 여행자만의 특권으로 무심한 듯 남긴 그 기록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낯선 장소로 떠나길 꿈꾸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한국어 생성 통사론

김용하, 박소영, 이정훈, 최기용 외 | 역락 | 2018

〈학술원우수도서 선정〉 생성 문법에 기초하여 한국어 통사론을 체계적이고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저서는, 그 내용이 초보적이건 전문적이건 간에 드문 실정이다. 생성 문법에 기반을 둔 한국어 통사론의 큰 틀이 아직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셈이며, 이에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요청된다. 이 책은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시도로서, 한국어 통사 현상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최신 연구 성과에 대한 고찰은 최소한으로 하고, 한국어 통사 현상을 대상으로 생성 통사론적으로 사고하고 연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제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삼국지, 문화기행

남덕현 지음 | 신아사 | 2018

이 책은 생활 속에서 「삼국지」와 관련된 문화 현상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으며, 「삼국지」가 언제,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가하는 궁금증에서 시작된다. 이에 소설 삼국지의 역사적 배경과 삼국지 문화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역사가 어떻게 소설화로 되어갔는지 그 과정과 이와 관련된 민간전설, 주요인물도 살펴보고 있다. 특히 삼국지의 주요 인물 가운데 관우(關羽) 숭배사상과 관련된 문화와 중국 고전시가 속의 관우 형상을 정리하였다. 나아가 우리나라에는 삼국지가 어떻게 수용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삼국지문화와 관련된 고사성어를 정리하였다.